

중등과학 초임교사가 교직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구은주 · 박윤배*

중리중학교 · ¹경북대학교

An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Faced by New Science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Koo, Eun-ju · Park, Yunebae^{1*}

Jungrri Middle School · ¹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that new science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experienc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90 science teachers attending qualifying training for 1st degree of teaching certificate. Using an open questionnaire, the difficulties these teachers encounter were collected, categorized, and compared between their first year and their succeeding years of teaching in terms of their school level, gender, majors and regions.

Results showed that first year science teachers have had difficulties in areas including subject teaching, guidance, administrative affairs, human relationship and self-understanding. On their succeeding years, difficulties about subject teaching were reduced to half while other difficulties remained. New teachers in middle schools have experienced the most number of difficulties about guidance, while new teachers in general high schools have experienced the most number of difficulties about subject teaching.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for new science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school administrators, and training institutions.

Key words: Science Teacher, Difficulties, Secondary School, New Teachers

I. 서론

교직에 입문한 초임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교직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초임교사는 부임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뀐다. 대학생에서 교사로의 전환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교사교육 훈련과정으로부터 교사로서의 첫 경험으로의 전이는 전이충격(transition shock)이라 불릴 만큼 인상적이고 충격적이다(임승렬, 1995). 초임교사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Veenman(1984)이 현실 충격(reality shock)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불안감, 학생 지도와 통제 의 어려움, 교수활동이 많은 시간과 무한한 정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임승렬,

1995). 초임교사가 교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초임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불만족은 학생들에게도 투영될 수 있으며,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Katz(1972)와 Burden(1983)은 초기 교직단계로 교직 첫 해에 해당하는 시기를 생존 단계로 분류하여 이 시기의 교사들은 모든 업무에 서투르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적응 단계 또는 강화 단계인 2년, 3년째에 해당하는 교사는 어느 정도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조직에 익숙해지게 된다. 교사로서 해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교직 첫 해부터 한꺼번에 떠맡게 되는 직업상의 특징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직 첫 해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며 2년, 3년째가 되면서 그 어려움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

초임교사의 교직 수행상의 어려움과 교직 사회화에 관한 선행 연구는 유치원(강상이, 2002; 황은희,

*교신저자: 박윤배(ypark@knu.ac.kr)

**2010.10.20(접수) 2010.12.23(1심통과) 2011.02.21(2심통과) 2011.02.21(최종통과)

2007; 임승렬, 1995)과 초등학교(김춘영, 2001; 이주연과 정혜영, 2007; 김진철과 이시용, 1989), 중학교(이승복, 1998; 김도형, 2003; 이윤식과 김광범, 2007; 류방란, 2002) 초임교사에 한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Likert 척도로 나타내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어려움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Likert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인위적으로 점수를 매겨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기술하는 방법에 비해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기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류방란(2002)과 강상이(2002)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중학교와 유치원 교사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일화기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과학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윤희경, 2004; 이수아 외, 2007; 강경희, 200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과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직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과학 초임교사들이 교직 첫 해에 겪은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에 겪은 어려움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중등 과학교사 양성기관, 교사 연수 기관 및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교직 적응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과학 교사 교육 및 교사 연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교직 첫 해의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교사의

근무학교별, 성별, 전공별 및 근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근무지역에서 광역시는 대구와 울산, 비 광역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 교사들이 교직 첫 해의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부터 조사당시까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기술하도록 하여 본인의 기억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정확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역 분류에서 중복응답을 허용하였기에 카이제곱법에서 가정하는 관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유의도 해석에 제한이 있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2005년과 2006년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 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원 연수원에서 주최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여한 중등 과학교사 19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직 경력이 3년 이상인 2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2. 분석틀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표 1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

구분		응답자
성별		남(46), 여(144)
전공		물리(44), 화학(41), 생물(55), 지구과학(50)
근무지역	첫 해	광역시(94), 비 광역시(96)
	둘째 해 이후	광역시(95), 비 광역시(95)
근무학교	첫 해	중학교(113), 일반계고(55), 전문계고(18), 중·고 병설교(3), 무응답(1)
	둘째 해 이후	중학교(116), 일반계고(57), 전문계고(15), 중·고 병설교(2)
계		190

를 위해 선행 연구(이승복, 1998; 김도형, 2003; 김점동, 2006)들에서 사용한 기록지에서 내용들을 추출하여 과학 교과에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그 내용들을 교과지도,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자기이해의 5개의 대영역으로 분류하였다(구은주,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영역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교사들에게 교직 첫 해와 둘째 해 이후의 교직 생활에서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경우를 각각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190명의 교사들이나 어려움을 겪은 사례 수는 교직 첫 해 270건, 둘째 해 이후 217건으로 조사 대상 교사 수보다 많았는데, 이는 한 교사의 진술문 가운데에서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

대영역	소영역	대영역	소영역
교과지도	수업분위기 조성	사무관리	과다한 업무
	상치과목의 지도		업무에 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수업자료 준비		담당 업무 처리 미숙
	교과내용의 조직		시설·제도에 대한 불만
	수업방법 구상		동료교사와의 관계
생활지도	학생들의 수업이해도 파악	인간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학급 운영		학생들과의 관계
	문제학생 지도		관리자와의 관계
	사고 해결	자기이해	자신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한계
	학생의 특성 파악		나태함과 무력감
학생의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		배운 내용과 현상이 다른 것	

표 3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대영역별 어려움

대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교과지도	73(27.0%)	29(13.4%)	102(20.9%)	18.98**
생활지도	72(26.7%)	63(29.0%)	135(27.7%)	.60
사무관리	57(21.1%)	49(22.6%)	106(21.8%)	.60
인간관계	46(17.0%)	49(22.6%)	95(19.5%)	.10
자기이해	22 (8.2%)	27(12.4%)	49(10.1%)	.51
계	270(100%)	217(100%)	487(100%)	

$\chi^2 = 15.201, df = 4, p = .004$
** : $p < .01$

먼저 연구자가 교사들의 글을 읽고 분류한 후, 과학 교육학 전공 교수 1명과 교육공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동료교사 1명, 과학과 교사 2명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직 첫 해와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간의 차이, 근무학교에 따른 차이, 성에 따른 차이, 전공에 따른 차이, 근무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자승법을 적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첫 해와 둘째 해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카이자승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근무 첫 해와 둘째 해 이후에 겪는 어려움

1) 전체 영역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기간별로 대영역 수준에서 정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 190명이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교직 첫 해의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부터 느끼는 어려움의 사례 수는 각각 270건, 217건으로 교직 첫 해의 사례수가 더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생활지도, 사무관리, 교과지도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이해에 관한 어려움이 적었다.

표 3에서 보듯이 χ^2 검증결과,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교직 첫 해와 둘째 해 이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 해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사무관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으나, 그 후에는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지도 영역의 어려움이 둘째 해 이후에는 유의미하게 줄어 들었다. 이는 초임교사들이 학생이해, 수업과 학급운영,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강상이(2002)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중학교 초임교사에 관한 이승복(1998)의 연구에서는 초임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도형(2003)의 연구에서는 교과지도와 학급경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초임교사에 관한 김점동(2006)의 연구에서는 초임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교직 첫 해에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많이 어려워하며, 그 이후부터는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2) 교과지도 영역

교과지도 영역의 소영역별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교직 첫 해와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직 첫 해에 겪던 수업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상치과목의 지도, 교과내용의 조직 등이 크게 줄었다. 이는 교과지도 경험이 늘어나면서 숙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업방법과 다양한 실험방법을 연구하는 등 수업방법 구상에서의 어려움은 증가했다. 이는 경력이 쌓이면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어려움은 줄어들지만 교사 스스로의 능력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교직 첫 해에는 상치과목의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과학과목의 특성상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많고 자신이 전공한 교과 이외의 과목을 지도할 때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학과목으로 통합하여 지도하므로 교사가 전공한 과학 분야가 아닌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자신감이 떨어지며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하게 되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3) 생활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의 소영역별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해와 둘째 해 이후를 비교해 보면,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학급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일과 문제해결 생 지도가 가장 많았다. 초임교사는 처음 담임을 맡은 학급에 큰 기대를 갖고 학급을 경영하려 하지만 중등

표 4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대영역별 어려움

소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수업분위기 조성	22	3	25	14.44**
상치과목의 지도	15	6	21	3.86*
수업자료 준비	11	6	17	1.47
교과내용의 조직	14	1	15	11.27**
수업방법 구상	2	10	12	5.33**
학생들의 수업이해도 파악	9	3	12	3.00
소계	73	29	102	

$\chi^2 = 25.048, df = 5, p = .000$
 ** : $p < .01$ * : $p < .05$

표 5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생활지도 영역의 어려움

소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학급 운영	30	26	56	.29
문제학생 지도	18	20	38	.11
사고 해결	4	11	15	3.27
학생의 특성 파악	9	4	13	1.92
학생의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	11	2	13	6.23*
소계	72	63	135	

$\chi^2 = 11.262, df = 47, p = .024$
* : $p < .05$

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며, 많은 초임교사들이 학급운영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젊은 초임교사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등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도 많았으나 둘째 해 이후에 이 부분은 크게 감소했다. 문제학생 지도에서의 어려움은 사례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따라서 문제학생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직 초기에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학교에 발령을 받은 첫 해에 ‘문제학생 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고로 부임 후 기계과 1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고에서 담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전혀 판판인 학교시스템과 학생들의 요구와 목표도 달랐다. 그래서 교사도 학생의 요구와 목표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뒷수습하기에 바빴다. 그러던 중 4월 중간고사를 마칠 무렵부터 한 학생이 자꾸 결석을 하고, 수업 시간 중 옆 반 학생과 같이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신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소문 해보고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 있고 학생은 누나 집에서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정식 결혼없이 동거하는 누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쪼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상담의 효과는 없었다. 달래고 어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통했다. 오히려 나오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숨박꼭질하는 형국이 되어갔다. 나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고,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수업 도중에 사라지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에 출근하기만 하면 우선 그 녀석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내 요구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심지어 매질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내 오기는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고, 결국 학생은 자퇴를 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허전했던지.....”(중학교 K교사, 화학)

이 외에 초임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것과 자신이 초임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근무 첫 해에 ‘학생들의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게 저는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신규 선생님이로 보였나 봅니다. 처음엔 젊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학생들을) 무조건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학생들의 눈엔 선생님이 아닌 만만한 친구쯤으로 보였나봅니다. 1학기 말부터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떨 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떠들 때도 있어서 수업 도중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줄 몰라 찢찢했던 기억도 납니다.”(중학교 G교사, 지구과학)

4) 사무관리 영역

사무관리 영역에서 소영역별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사무관리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초임 교사들은 경력이 있는

표 6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사무관리 영역의 어려움

소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과다한 업무	31	33	64	.06
업무에 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15	4	19	6.37*
담당 업무 처리 미숙	11	8	19	.47
시설·제도에 대한 불만	0	4	4	4.00*
소계	57	49	106	

 $\chi^2 = 10.360, df = 3, p = .016$ * : $p < .05$

교사들이 맡기 싫어하는 업무들을 주로 맡게 되거나 초임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업무가 자신에게 맡겨지는 것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첫 해와 둘째 해 이후 사이에 업무에 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은 감소하였고, 시설·제도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였다. 시설·제도에 대한 불만으로는 4년마다 정기전보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승진제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불만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장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평교사를 부리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 달리 동료들과 단절된 공간인 교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동료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근무 첫 해에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의 경우에는 학교의 담당업무가 가장 서툴렀다. 첫 업무가 양호관련 업무였다. 교육청에서 중식 업무와 관련하여 공문을 기한까지 엄수하여 요청하면 나는 재빠르게 처리하지 못했고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들었다. 작년 업무 담당자는 출산휴가로 없었고 부장 선생님마저도 체육과 선생님이라 잦은 출장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 그때는 왜 그리 두려웠던지...”(중학교 M교사, 물리)

과학교사들은 교무업무 분장 상의 업무와 과학관련 행사 업무가 겹쳐서 주어지므로 인해 과다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승복(1998)의 연구에서 중학교 초임교사들은 교무분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학교사들은 교직 초기에 사무관리 영역의 어려움을 비교적 많이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과학관련 행사가 많은 과학과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일선학교에는 책임이 많이 따르는 주요한 업무들은 초임교사보다는 경력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초임교사의 경우는 각종 행사 지도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과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행사가 많으며 각종 과학관련 대회의 지도로 인해 초임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남자라고 여러 가지 업무를 나에게 부과하였다. 시범학교 운영 실무, 방송반, 3학년 담임, 다른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 떠넘긴 청소구역 등이 나에게 맡겨졌다. 과중하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관계로 잦은 출장과 공문처리,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수업에 충실한 시간이 없었다. 수업보다는 업무가 우선시 되었고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가기 일쑤였으며 수업 중 불려나와 일을 처리한 적도 있었다.”(중학교 O교사, 물리)

5) 인간관계 영역

인간관계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소영역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자,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들은 나이가 젊고 경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 동료교사

표 7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인간관계 영역의 어려움

소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동료교사와의 관계	9	21	30	4.80*
학부모와의 관계	12	10	22	.18
학생들과의 관계	13	6	19	2.58
관리자와의 관계	12	12	24	.00
소계	46	49	95	

$\chi^2 = 7.473, df = 3, p = .058$
* : $p < .05$

와의 어려움은 첫 해보다 둘째 해 이후가 되면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누나의 말이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서 한술 더 뜨는 것이었다.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누나에게 전화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저녁에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고도 네가 교사냐!’ 이러시는 것이었다.”(중학교 Q교사, 화학)

6) 자기이해 영역

자기이해 영역의 소영역별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자질 부족, 나태와 무력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첫 해에는 자신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둘째 해 이후에는 나태함과 무력감에 빠지는 교사가 많았으며 이는 주로 4년이 되는 해에 많이 나타났다. 배운 내용과 현장

표 8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자기이해 영역의 어려움

소영역	첫 해	둘째 해 이후	전체	χ^2 값
자신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한계	17	7	24	4.17*
나태함과 무력감	0	20	20	20.00**
배운 내용과 현장이 다른 것	5	0	5	5.00*
소계	22	27	49	

$\chi^2 = 28.958, df = 27, p = .000$
** : $p < .01$ * : $p < .05$

이 달라서 힘들다는 내용은 첫 해에만 나타났다.

2. 변인별 차이

1) 교직 첫 해에 겪는 어려움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근무 첫 해에 겪는 어려움은 대영역에서는 성, 전공, 근무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인 차이가 없었고, 근무학교에 대해서는 대영역 간에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근무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계고는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하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영역별로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초임교사들은 자퇴, 가출 등 문제학생의 생활지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은 수업분위기 조성 및 수업시간 학생지도 등의 교과지도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 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이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자기이해 영역에서 일반계 고교 교사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나, 응답한 교사의 수(중학교 109명, 고등학교 52명)를 감안하면 근무학교별 차

표 9

교직 첫 해에 겪는 근무학교별 어려움

영역	중학교	일반계고	계
교과지도	38(22.0%)	27(39.1%)	65(26.9%)
생활지도	48(27.7%)	17(24.6%)	65(26.9%)
사무관리	38(22.0%)	16(23.2%)	54(22.3%)
인간관계	35(20.2%)	4 (5.8%)	39(16.1%)
자기이해	14 (8.1%)	5 (7.2%)	19 (7.8%)
계	173(100%)	69(100%)	242(100%)

$\chi^2 = 12.043, df = 4, p = .017$

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김점동(2006)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 초임교사들이 교과지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활지도, 사무관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점동(2006)의 연구에서는 전공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5년 미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Likert 척도로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학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첫 해에 경험한 어려움을 사례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어려움을 느낀 시기와 어려움을 나타내도록 한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과학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박중윤외(1994)의 조사에서는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업무 분장과 관련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습지도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이 교과지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습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지역에 따라 전체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광역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은 사무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비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냈다. 광역시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학교규모가 크고 교사들의 수가 많으며 과학교사들이 과학실에서 근무하므로 교직 첫 해에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이유라고 판단된다. 비 광역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은 교과지도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업분위기 조성, 상치과목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교사들이 광역시 보다 비 광역시 소속이 두 배 정도 많았음을 고려하여 비교해 보면, 비 광역시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광역시 학교에서는 사무관리의 어려움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근무지역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가 교직 첫 해에 겪는 어려움

영역	광역시	비 광역시	계
교과지도	8(29.6%)	19(45.2%)	27(39.1%)
생활지도	3(11.1%)	14(33.3%)	17(24.6%)
사무관리	12(44.4%)	4 (9.5%)	16(23.2%)
인간관계	3(11.1%)	1 (2.4%)	4 (5.8%)
자기이해	1 (3.7%)	4 (9.5%)	5 (7.2%)
계	27(100%)	42(100%)	69(100%)

$\chi^2 = 15.889, df = 4, p = .003$

2) 둘째 해 이후에 겪는 어려움

중등 과학 초임교사들이 둘째 해 이후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근무학교, 성, 전공, 근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이론과 다른 학교 현장에 부딪치며 경험하게 되는 교직 수행상의 어려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교직 첫 해의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교사의 근무학교별, 성별, 전공별 및 근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교직 첫 해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자기이해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은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교과지도, 자기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근무 첫 해에는 과다한 업무, 학급 운영, 수업분위기 조성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임교사에게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거나,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임하거나,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실패경험이 교직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게 되어 힘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으로는 과다한 업무, 학급 운영과 관련한 것이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동료교사와의 관계, 문제학생 지도, 나태함과 무력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았다. 이는 초등학교 초임교사들이 교직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지도 이외의 영역이 교과지도 영역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교직 문화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천규(1996)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교과지도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감소하나, 생활지도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둘째 해 이후에도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수업자료 준비, 학급운영, 문제학생 지도, 사고 해결, 학생 특성 파악, 과다한 업무, 업무처리 미숙,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관리자와의 관계 등이었다. 이런 내용들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같은 현직연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겠다.

교직 첫 해와 둘째 해 이후를 포함한 교직 초기의 중등 과학 초임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직전교육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교육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는 없으며 학생들과의 관계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김봉련, 2001). 교사양성기관에서 많은 예비교사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일 것이다. 전공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며, 교사로서의 의무로 교과지도를 가장 크게 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상 교육 현장에 교사로 서게 되었을 때 많은 교사들은 교과지도보다는 생활 지도와 사무관리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교직 첫 해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근무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초임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은 교과지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에서의 어려움을, 비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과학 초임교사가 둘째 해 이후부터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하여 중등 과학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에 진출한 첫 해의 교사들에 대해 각 학교에서는 초임교사가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선배교사에 의한 멘토링, 경력교사의 협조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가인 교장·교감은 교내 업무 분장에서 초임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나 어려운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세히 도와주어 자신감이 낮아지지 않고 업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연수 기관에서는 교직의 초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는 영역들, 즉 수업자료 준비, 학급운영, 문제학생 지도, 사고 해결, 학생 특성 파악, 업무처리,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관리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들을 연수에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이외에도 학급운영, 수업분위기 조성, 교무업무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학교현장실습을 강화하여 부임 즉시 교사로서 기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이론과 다른 학교 현장에 부딪치며 경험하게 되는 교직 수행상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교직 첫 해의 어려움과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교사의 근무학교별, 성별, 전공별 및 근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교직 첫 해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자기이해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은 생활지도, 사무관리, 인간관계, 교과지도, 자기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에 교과지도에 관한 어려움은 줄어들었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근무 첫 해에는 과도한 업무, 학급 운영, 수업분위기 조성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 이후의 어려움으로는 과도한 업무, 학급 운영과 관련한 것이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동료교사와의 관계,

문제학생 지도, 나태함과 무력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았다.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교직 첫 해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근무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초임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은 교과지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에서의 어려움을, 비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과학 초임교사가 둘째 해 이후부터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교, 행정가, 연수기관, 양성기관별로 가능한 제언을 추가하였다.

참고 문헌

- 강경희(2009). 중등 과학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9(5), 580-591.
- 김상이(2002). 교사발달 측면에서 본 유치원 초임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은주(2010). 중등 과학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형(2003). 중학교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련(2001). 초임교사 연수 내용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점동(2006). 고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철, 이시용(1989).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지도를 위한 문제 분석과 그 지도방향의 모색.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춘영(2001). 초등학교원의 교직수행상의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방란(2002). 중학교 초임 교사들의 당면 문제와 대처 방식. 한국교육, 29(1), 59-86.

박중윤, 강순희, 허명, 박승재(1994). 중등 과학교사의 근무 여건과 대우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4(3), 366-378.

윤혜경(2004). 초등 예비교사들이 과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초등과학교육, 23(1), 74-84.

이수아, 전영석, 홍준의, 신영준, 최정훈, 이인호(2007). 초등 교사들이 과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초등과학교육, 26(1), 97-107.

이승복(1998). 신입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식, 김광범(2007). 중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갈등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5(2), 145-164.

이주연, 정혜영(2003). 초등 초임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인식과 정서. 교육과학연구, 34(1), 125-143.

이천규(1996).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현장적응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승렬(1995). 발달초기 교사의 교육신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제24집.

황은희(2007).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 유치원 예비교사, 초임교사,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urden, P. R.(1983). Implications of teacher career development: New role for teacher, administrators, and professor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4(4), 21-25.

Katz, L. G.(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Veenman, S.(1984).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2), 143-178.